

취임사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

새천년의 시작과 때를 같이하여 우리 협회의 제12대 회장으로서는 그 소임을 명 받은 본인은 우선 지면을 빌어 우리협회 전 회원가족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가진 풀 한 포기, 나무 한그루가 차세대 생명산업의 밑바탕이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생약농업도 이제는 기존의 농사 틀, 기존의 유통구조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과학적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정책·기술 자문단 활용

최선을 다해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의 다리를 놓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자 경선 당시에 여러분께 약속한 사항은 물론, 정책자문단과 기술자문단을 활용하여 우리 가족의 살길을 다방면으로 찾아

볼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5만 생산농가를 실질적 회원으로 확보하고, 인적 정보와 생산정보를 전산화하여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소비자, 소비자 단체에 홍보함으로써 생산자 단체로서의 진면목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새 정부가 들어 각종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생약 분야에는 아직도 불합리한 법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약재의 변칙적인 식품용도 수입은 물론, 지역 공판장이나 상설매장에서의 한약재 판매 행위에 대한 시비는 모든 회원 여러분께서 겪고 계시는 애로 사항일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설치코자 하는 정책자문단을 십분 활용하여



황인구 회장

근거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즐기차게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문제를 해결토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비자 단체, 입법부, 행정부 등 각계인사들이 모인 정책간담회를 자주 갖도록 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도록 하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유관단체 및

정부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우리 회원의 실익을 창조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하나로, 최근에 개발되어 시험평가중인 마이크로파 건조 시설을 우수지역을 선별해 무상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새로 개발된 최첨단 건조기는 열풍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약재의 변색이 전혀 없는 기계로 금년 수확철에는 우리 생산회원이 이 건조기를 사용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우량품종 보급사업 추진

또한 기술 자문단을 활용하여 우량품종의 보급, 종묘의 저가 공급사업을 우리협회의 수익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3천평

규모의 꽃대 안서는 당귀의 채종 사업에 착수했습니다만 금년 후반부터는 1만평 규모로 확대하여 2002년에는 전국의 당귀밭에서 꽃대를 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가지 사업만 성공해도 우리 협회는 물론, 모든 생산 회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회원여러분, 급변하는 21세기에 국내 생약농업이 그리고 우리협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 소비자가 바라는 서비스를 위해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만이 변화의 첫 걸음이라 확신합니다.

회원여러분, 희망찬 새천년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을 기대하며 회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토종식물 의약품 개발에 정부나서

과기부는 올부터 10년동안 식용·약용식물의 자원화 연구를 중심으로 매년 1백억원 안팎을 투입할 계획이다. 인간유전체 사업과 함께 국내 생명공학의 양대 투자분야로 떠오른 '자생식물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짚어본다.

◆식물에서 금맥찾기=이제 식물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다. 미국보건원(NIH)은 1980년대 후반 '약초의 과학화' 작업에 나서 항암제 '타솔'을 개발하는 등 적지 않은 수확을 거뒀다.

NIH는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산하 국립암연구소를 중심으로 최근 열대지역 자생종을 포함, 1만5천여종 이상의 식물자원을 의약품으로 만드는 연구를 진행중이다. 또 세계 최대 다국적 제약회사인 머크사는 40만종의 생약자원을 확보, 의약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머크사의 98년 매출액중 40% 가까운 51억달러가 식물에서 유래한 의약품에서 나왔다.

또 네덜란드의 백합연구소팀은 새로운 품종 개발에 아시아산 백합을 주로 이용하는 데 그중 하나가 한국산 '나리'다. 우리의 나리는 병충해에 강한데다 색조가 아름다워 품종 개량에 두루 활용되고 있다.

과기부 추정에 따르면 10년 후 식물자원을 이용한 의약품

등 세계시장 규모는 3백억달러선. 식물유래 의약품 시장의 규모가 지난 95년부터 연평균 20%대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비춰보면 과장된 추산이 아니다.

◆왜 자생식물인가=연간 6백억알이 팔린다는 아스피린 성분은 버드나무에서 유래했다. 약품중에는 이처럼 식물고유성분을 이용한 것이 많지만 이미 선진국에 의해 산업화 연구가 진행된 식물은 특허가 걸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내 자생식물은 한반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연구되지 않은 식물도 상당수에 이를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생명공학연구소팀은 이런점에 착안, 울릉도산 주목의 특성을 이용해 산업화에 나서고 있다.

항암효과가 있는 타솔이 주목에 들어있다는 것은 미국 NIH팀에 의해 이미 알려졌지만 울릉도산 주목의 타솔성분이 잎사귀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밝힌 것. 미국 주목의 경우 껍질에 타솔 성분이 많아 추출과정도 복잡하고 자칫 나무를 상하게 하거나 죽여버리는 단점이 있다.

또 야생 도라지나 율나무 역시 산업화, 약용화 가능성이 밝혀지는 등 유망자생식물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야생도라지의 경우 특유의

색소가 푸른색의 장미를 만드는데 이용될 수 있고 율나무의 경우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물을 다량 함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생식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우선 자생식물의 종수만 해도 학자에 따라 2백~4백종까지 큰 차이가 날 정도로 파악이 허술하다.

◆개발전략과 기대효과는=과기부는 약용식물산업의 산업자원화를 위해 '국내 자생식물 다양성 산업화 사업단'(가칭) 구성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3단계로 나뉘어 향후 10년동안 추진될 계획. 3백억원이 투입되는 1단계사업(올해~2002년)에서는 유용한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존하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 이어 2,3단계에서는 식물에서 유용한 성분을 뽑아 시제품 개발까지 끝낼 예정.

또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수 있는 자생식물에서 특유의 유전자를 뽑아 신기능 식물도 만들어 낼 계획이다.

식물을 이용한 의약품의 국내 시장은 지난해까지 수천억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이 사업이 끝나는 2010년을 전후해 9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00.3.14일자 중앙일보)

6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각 정부부처의 발걸음이 사뭇 빨라지고 있다. 해방된 처음 심사된 역사적인 정상회담인 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많고 논의하고 싶은 의제도 많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한약재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선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관련 시민단체들의 움직임과 요구는 무엇인지 지난 4월15일자 한겨레신문 기사내용을 발췌해 실는다.

한약재나 생약등 약용식물 남북한 공동연구 제안 검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가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이고 비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선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의약품 등 대북지원과 협력이 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옛서독도 보건의료분야의 교류를 가장 먼저 활성화해 통일독일의 기틀을 다졌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겠지만, 복지부는 일단 보건의료분야 교류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민간단체들의 자발적인 대북지원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의약품 지원 수요 등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

가는 한편, 한약재나 생약등 약용식물 분야에서의 남북한 공동조사와 연구를 제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부터 세계보건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진행해온 말라리아 치료제와 모기 퇴치약 지원사업은 계속하되, 세계보건기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제약, 식품, 화장품 분야를 맡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업계의 남북교류사업 현황과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남북교류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는 결핵치료제, 항생제, 백신 등 필수약품 생산을 북한 현지 합작공장 설립 등을 주요 교류사업 과제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